

교환학생 보고서

이름	한글	홍진현	영문	HONG JINHYEON
파견 국가	헝가리		파견 대학	BME

■ 교환학생에 관심 갖게 된 계기 및 지원 동기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취업만을 위한 대학생활이 아닌 제 개인적인 대학목표를 세우고 실천하고 계획하고 스스로 실행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의 하나가 대학생활 동안 아시아와 유럽에 각각 한 번씩 교환학생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목표도 여러 개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아, 2번의 교환학생은 좀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국제교류원에서 너무 뜻깊은 기회를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금오공대는 교환학생은 다른 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률도 낮아, 마음만 먹으면 잘 준비하여 교환학생의 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학교 학생들이 20대에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좋은 추억을 만들고, 많은 것을 느끼면 좋겠습니다.

■ 출국 전 준비 사항과 주의 할 점(상대교 서류준비, 비자발급 절차, 항공권 구입, 수강신청 및 기숙사 신청 내용 포함)

상대교 서류준비는 딱히 없고, 공지 안내 메일이 오면 거기에만 잘 답변하면, 페이스북 페이지나 여러 경로로 학기 시작하기 전에 여러 학생들과 소통의 채널을 만들어주고, 필요한 것들은 다 준비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로 메일로 대화를 하니 혹시 스팸메일이나 휴지통으로 가지는 않았는지, 본인만 안내 메일을 못받은 것은 아닌지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자는 한국에서 헝가리 대사관에서 신청한 뒤 헝가리 현지에서 거주증을 받을 수도 있지만, 굳이 한국에서 하지 않고 현지에서 바로 신청해도 가능합니다. 비용은 6,7만원 내외로 들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항공권 구입은 개인이 준비하는 부분인데 저는 스카이스캐너 사이트를 사용하여 구입하였습니다. 기숙사는 교환학생들에게 지원되지 않고 따로 방을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구하거나 현지에서 발품을 팔아 구하여야 합니다.

수강 신청은 학기 시작하기 전 오리엔테이션 기간에 잘 설명해줍니다. 영어로.

■ 파견대학 소개(크기, 지리적 위치, 기후, 주변 환경 내용 포함)

저는 개인적으로 부다페스트가 약간 서울과 비슷하다고 많이 느꼈습니다. 중앙에 도나우강을 중심으로 부다와 페스트가 나뉘지고 거주지역과 상권 지역으로 크게 분리가 됩니다.

제가 있었던 1학기에는 처음에는 눈과 비가 좀 내리다가 한 3월부터 따뜻해지기 시작했고 그 뒤로는 좀 더웠습니다. 겨울에는 한국보다 덜 춥지만 여름에는 한국보다 높은 기온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한국처럼 습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 한국과는 다른 느낌의 여름입니다.

■ 수업 및 학사 관련 사항(수강과목 포함)

학사 관련 사항은 주로 메일로 공지가 오는데, 주로 그 학교 정규학생을 위한 공지로 헝가리어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교환학생을 위한 레터가 상대교 국제교류원에서 주기적으로 오기도 합니다.

잘 확인하시고 관심있는 부분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업은 학기가 시작하기 전 오리엔테이션 기간에 빌딩과 캠퍼스 지리를 설명해주는 하지만 건물도 많고 한 본 훑어보고 지나가는 정도이기 때문에 한눈에 익히고 첫 수업부터 강의실을 찾아가기는 매우 힘듭니다. 물론 상대교 학생들이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물어보고 찾아갈 수는 있겠지만, 교환학생 수도 엄청 많이 때문에 모르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학기가 시작하기 전 강의실 건물 위치를 잘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 숙소 및 거주 관련 사항(기숙사비, 생활비 내용 포함)

알아서 개인이 flat(아파트나 개인 거주지에 각자 방을 나눠 쓰는 구조)을 페이스북 페이지나 현지에서 발품을 팔아 구해야 합니다.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구하면 사기 당할 수도 있지만, 거의 없고 대부분 그렇게 구합니다. 하지만 전 교환학생은 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선입금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잘 확인해보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현지에 가서 구하는 게 제일 안전하고 확실하지만, 가서 구하는 경우 좋은 매물은 이미 계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 파견대학 국제팀 프로그램/서비스 및 교환학생 활동 소개

개인적으로 상대교의 국제 류원에는 방문하거나 필요한 부분은 요청한 적이 없고, 금오공대 국제교류원의 교류도우미처럼 멘토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에게 물어보거나 해당 학기 페이스북 페이지에 궁금한 점을 올리면 같은 교환학생들이 도와주기도 합니다.

교환학생이 많다보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활동이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교환학생들이 다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 프로그램 주제에 따라 개인의 참여도가 다릅니다. 거기 가서도 비슷한 국가끼리 어울리기도 하고 그런데, 교환학생이 엄청 많다 보니 모두 다 알고 지내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 학교 부대시설 및 추천하고 싶은 동아리

학교 부대시설 중 기억나는 것은 도서관과 체육관인데, 사실 도서관은 한 번도 가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듣기로는 저녁 8시까지만 운영하고, 꽤 좋다고 들었습니다.

체육관에서는 테니스, 배드민턴, 스쿼시 등 다양한 운동을 할 수 있지만 비용이 꽤 있는 편입니다.

배드민턴이나 스쿼시가 한 시간에 약 1만원이 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문화적 차이 및 향후 파견 학생들을 위한 TIP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특정 문화와의 차이는 말 할 수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동유럽에는 인종차별이나 백호주의가 서유럽보다 심하다고 들었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다페스트에는 물가가 유럽에 비해 싸고 놀기가 좋은 파티의 도시입니다. 서유럽에서 물가가 싼 동유럽으로 많이 오는데 특히 부다페스트에는 클럽이나 펍 등이 많고 맥주가 싸 많이들 놀러오고 유럽의 교환학생으로 많이 오는 곳입니다. 때문에 마약을 많이 하기도 하고 밤에는 위험한 거리가 몇군데 있기도 합니다. 여학생 뿐만 아니라 남학생들도 너무 늦은 시간에는 혼자 돌아다니시거나 몇몇 거리는 피해다니시면 치안에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신경을 안 썼는데, 안전은 항상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니, 혹시나 해서 인지는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느낀 점, 배운 점

저는 교환학생도 이미 한번 다녀왔고, 인턴도 2번이나 했습니다. 동기 친구들은 제가 교환학생 가는 시기에 취업을 해 많은 연봉을 받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하여, 비행기 티켓을 사기 전까지도 하루에 12번은 넘게 고민하고 마음이 왔다갔다 했습니다.

가는게 맞는 걸까, 너무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사는 게 아닐까, 여러 생각도 들었지만, 고민하고 생각만 하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과정보다 결과를 중심으로 어떤 일을 결

정하는 편인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많이 후회할 것 같습니다. 취업은 갔다와서도 할 수 있지만, 지금 20대의 이 순간이 지나면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녀온 뒤 교환학생 보고서를 쓰는 이 순간에도 다녀온 게 신의 한수이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제 인생의 전성기 중 한 부분이었다고 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글을 읽는 분이시면 갈지 말지 고민하실 것 같은데, 잘 생각하시고 용기내시길 바랍니다!

■기타(사진, 건의사항, 등)

음 다시 한번 교환학생을 두 번 갈 수 있게 도와주신 금오공대 국제교류원 담당 선생님과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